

정부가 외면한 45년, 앞으로 얼마나 더...



안중근 의사 순국 109주년을 맞아 지난 3월 26일 남구 천주교 묘원에 안치된 안중근 의사 여동생 안성녀 여사의 묘에서 남구청장과 '안성녀 의사 독립유공자 수훈추진위원회' 회원, 안 여사의 친손자인 권혁우 광복회 부산남부연합회 회장 등이 참배 행사를 가졌다.

안성녀 여사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1974년 이곳에 묻혀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남구는 2016년 8월 안성녀 여사의 묘비석을 설치하고 묘 출입로 및 주변 제초작업, 잡목제거 등 묘소를 관리하고 있다.

<관계기사 8면>

## 남구 30억 규모 지역화폐 발행 추진

5000원권·1만원권 현금처럼 사용... 예산 확보 거쳐 연말부터 발행 계획

남구가 잠재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발행 규모는 30억원이며 1만원권과 5000원권 두 종류로 발행 예정이다. 상품권 발행 형태는 현금처럼 쉽게 쓸 수 있고 2차 유통도 편리한 종이형태 상품권을 우선 도입한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내년에 발행할 계획이다.

부산남구사랑상품권으로 명명된 이 지역화폐는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둔화 등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역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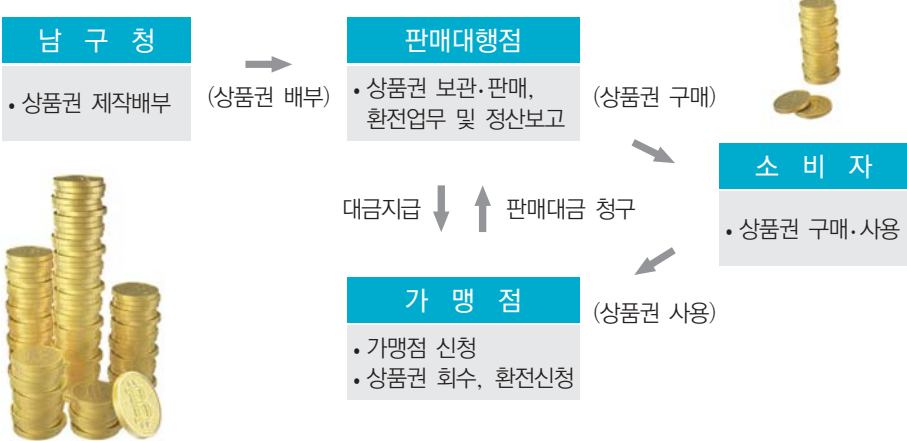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입 시 할인율을 은누리상품권(5% 할인)보다 1% 많은 6%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품권은

남구 내 식당, 학원, 목욕탕, 미용실, 전통시장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고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기준 남구 관내 소상공인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4815곳, 공중위생업소 1203곳, 학원 및 교습소 630곳 등 모두 8713곳이 영업을 하고 있어 남구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상반가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하반기부터 상품권 제작기간 및 판매·환전대행점 선정작업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이른바 연말부터 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07-4472

■ 부산남구사랑상품권 제작·유통 과정(예상)



## 화물선 충돌사고 계기 용호부두 조기폐쇄

6월 4일부터 화물처리 영구 중단... 일대 재개발 논의 급물살

남구 “체류형 관광지 위한 특급호텔 건설” 해수부에 건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로 계기로 주민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용호부두가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최근 부산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4일부터 용호부두의 화물 처리 기능을 영구 중단한다고 밝혔다. 용호부두는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에 현재 3개월간 1000t 이상의 화물선 입항이 제한된 상태다.

용호부두 폐쇄 조치로 용호부두 일원의 재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얼마전 남구는 용호부두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 조성하기 위해 관광객 100만 명이 넘

는 이기대공원과 연계한 특급관광호텔 건설 제안을 담은 세부계획 건의서를 해수부와 BPA(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다. BPA에서 작성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서(안)에도 용호부두 재개발사업 조속 추진, 동산교 확장, 특급호텔 건설 등 관광 지자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용호동 주민 350여명과 용호지역 시·구의원들도 지난 3월 9일 오후2시 용호부두에서 집회를 열고 “시민안전권을 위협하는 용호부두를 폐쇄하고 전수공간을 확보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년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용호부두와 주변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있다. 이번에 뜻밖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인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2016년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용호부두와 주변지역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했다고 있다. 이번에 뜻밖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로 인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됐다.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젝트 반대 남구청 입장문

## 8부두 세균무기 실험 의혹 미국이 밝혀라

지난 2018년에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일었지만 국방부에서 우리 구로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 제8부두에서는 어떠한 검사용 샘플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2019년 미에산 평가서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명시하고 2018년 예산 평가서에는 대규모 살아있는 매개체라는 표현 등으로 주한미군의 제8부두에 시료 반입 등 8부두가 미군 생화학 실험장으로 확인된 바, 8부두가 위치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답변만 믿을 수 없는 실정으므로 30만 구민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주피터 프로젝트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고위험 병원체 국내 반입 저지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주피터 프로젝트 관련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넷째,** 우리 구 관계 공무원 및 주민대표 등이 국방부 방문시 적극 협조를 요구한다.

**다섯째,** 8부두 관련 시설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한다.



북한 생화학공격 대비한 주한미군의 방어시스템

■ 주피터 프로젝트는 무엇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는 ‘연합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의 줄임말로, 북한의 생화학 공격을 대비한 주한미군의 선제적 방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지난 2016년부터 감탄동 8부두 내 미군기지에서 주민 동의 없이 이 방어시스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남구청은 2018년 4월 국방부에 이 문제를 공식 질문했고 국방부는 ‘부산항 8부두에는 미군 세균무기 실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8부두 내 주한미군의 생화학 실험 및 연습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0여년 매년 남구 방문

영국군 노병 명예구민 된다

(제임스 그룬디)

4월 10일 오후3시 남구청 대강당 초청 강연회 개최

6.25때 시신수습팀 복무... 유엔기념공원 조성 도와

영국군 6·25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James Grundy·87)씨가 남구 명예구민이 된다. 남구는 6·25전쟁 당시 시신수습팀(Recovery Unit)으로 복무하면서 유엔기념공원 조성을 돕고 이후 30년 넘게 매년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묘역을 돌보는 그룬디 씨의 남구에 대한 애착과 노고를 인정해 남구 명예주민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외국인 명예구민은 ‘우암동의 성자’로 불리며 50여년 남구 주민을 위해 헌신한 독일인 신부 하 안토니오 몬시뇰(가톨릭 고위 성직자) 이후 두 번째다.

한편 그룬디 씨의 방한에 맞춰 남구는 ‘한국을 사랑한 영국군 참전용사, 제임스 그룬디씨 시민 강연회’를 오는 4월 10일(수) 오후 3시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6·25전쟁이 치열했던 1951년 2월, 부산에 도착한 그룬디 씨는 전국의 전투 현장을 돌며 미처 수습하지 못한 아군의 주검을 되찾아 오는 임무를 수행했다. 복무 기간 영국군 외에도 미군, 국군 등 90여구를 수습해 유엔기

■ 제임스 그룬디씨 초청 강연회

일시 : 4월 10일(수) 오후 3시

장소 : 남구청 1층 대강당

대상 : 사전 신청한 내·외국인 누구나

남공원에 안장했다.

그는 정전협정 한 달을 앞둔 1953년 6월 영국으로 돌아간 뒤 축구선수수와 경찰관으로 생활하다 은퇴했다.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그는 1988년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유엔기념공원을 다시 찾은 것을 계기로 이후 30여 년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혼자서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자신이 묻은 전우의 묘역을 살피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인류애와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생존 참전용사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관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회는 사전 전화신청에 한해, 내·외국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607-4515(평생교육과)  
<제임스 그룬디씨 특별기고 11면>

남구, 기초자치단체 최초  
창업투자회사 설립 추진

(주)부산남구미래

창업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4~8월 연구용역

남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주)부산남구미래로 이름 붙여진 이 창업투자회사는 남구 내 창업기업이나 청년벤처기업,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남구의 망런드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연구 용역은 4~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내·외부 환경분

석, 국내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사례분석, 창업투자회사 설립 타당성(시장성)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남구청장은 “(주)부산남구미래 설립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능력을 가진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607-4294

남구청 휴 북카페, 비즈니스 공간 변신

미팅룸·사무기기·일자리정보망 ‘키오스크’ 등 갖춰 무료 이용

카페 기능은 그대로 유지

남구청 내 민원인 휴식공간인 ‘오륙도 휴 북카페’가 청년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한다. 구청 내 휴게 장소를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산에서 첫 사례다.

남구는 청사 1층에 위치한 오륙도 휴 북카페 공간 일부를 미팅룸과 창업 관련 서적과 PC, 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갖춘 스마트오피스 공간으로 조성해 ‘공유누리’로 명명하고 4월부터 무료 개방한다. 카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스마트오피스는 비즈니스 공간이 필요한 청년이나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예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창업관련 활동을 위해 미팅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607-6393)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남구는 스타트업 기업 사업설명회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경우 구청 내 회의실 및 대강당을 대여하고 스타트업 창업 관련 법률자문 등의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그런가 하면 이곳 카페(공유누리)에 IT 기반의 일자리통합 정보시스템 키오스크(사진)도 설치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 취업포털을 기반으로, 성별, 연령별에 따른 취업정보, 취업 취약층인 장애인 채용정보, 부산 강소기업 채용정보 등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쉽고 빠른 터치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607-4295

지 면 안 내

남구 공공갈등 관리 총력 4면

2030년 남구의 미래는 5면

100세 동향초등학교 이야기 6면

우룡산에 흐드러진 봄 7면

죽어서 한국에 온 8인의 노병 8면

꼬마 외교관의 평화를 찾아서

한국의 새 명물 드림씨어터 9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